

코로나 1000명 돌파... 3단계 가나

광주·전남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교회·병원 등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고심

광주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감염 경로도 교도소와 교회, 병원, 대기업,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5일 0시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도 전국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논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광주에서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진자는 811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6명은 광주교도소 수용자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지난달 9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직원 4명, 수용자 19명 등 23명이 확진됐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모두 15명이 신규 감염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일(11명)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확진자 중에는 교회 관련 6명, 병원 종사자 2명, 대기업 직원과 초등학교생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광주 서구 모 종합병원, 광산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종사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접촉자를 검사에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장 측은 확진자가 10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4일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학생, 교직원 등 401명이 검사를 받았다.

광주시는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주요 시설에 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좌석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축소한다. 자정까지 영업을 가능했던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도 같은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전남은 그나마 확진자 발생 규모 면에서는 지난 달 말부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주말인 12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신규 확진자는 54명으로 하루 평균 4명 수준이다. 다만 요양병원·교도소 등 고위험 다중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불안

요인이다.

지난 1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전남에서는 해외유입 사례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엔 순천교도소 직원(전남 475번), 화순 백재활요양병원 간호사 2명(479, 480번)이 포함됐다.

순천교도소 관련, 수용자·직원 등 36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에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화순 백재활요양병원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자 548명을 긴급 검사했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의료진 14명을 제외한 전체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세균 총리 “전남지역 의대 신설 정부 방침 변함 없다”

목포시의료원 코로나 현장 점검

민선 7기 전남도가 목표로 삼은 '전남지역 의대 신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전남을 찾아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정부의 방침이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코로나19 환자 24명이 입원한 감염병 전담 병원인 목포시의료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정 총리는 “의과대학 설립은 원점이 된 것은 아니다”며

“의정 협의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나 다른 의료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했을 때도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다고 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며 “당연히 전남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30여 년 전부터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을 문제 삼아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9월 당·정·교 의료계의 합의에 따라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의 염원인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이뤄 내도록 하겠다”며 “특히 의과대학 신설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원 100명 이상을 확보해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김정운



유현준



양정무



김대식



강신주

고수들의 명 강연...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 9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

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1년 3월~2021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19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63

光州日報社

한빛원전 끝없이 터지는 부실 의혹 ▶6면

KIA 조계현 단장 2년 재계약 과제는? ▶18면

건축물 열전 -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